



혼인 전부터 때렸다

오재호/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, KBS-2R “밤을 잊은 그대에게” MC

지 난달 초 63세가 넘는 노부부가 마침내 결별을 고하고 맙니다.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남편의 폭력입니다. “혼인 전부터 때렸습니다. 40년이 넘도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는 못살겠어요. 자식들도 다 제 짝을 찾아갔고요, 재산도 없습니다.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나누면 그것으로 끝납니다.” 할머니 쪽에서는 혼인 생활 42년을 미련없이 청산했습니다.

헌데 남편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.

“이젠 자식들도 다 성장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이혼입니까?” 결국 나는 여자 쪽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. 이런 폭력이혼은 젊은 부부들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오히려 더 많다는 표현이 옳습니다. 가정 폭력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.

“형사정책연구소”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폭력의 87%가 ‘피내림’입니다. 아버지가 어미를 때리면 그 자식도 폭력을 사용하더라는 뜻입니다. 쉽게 말해서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폭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.

폭력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. 혼인을 앞두고 그 사람의 집안을 보라는 뜻은 그 아버지와 그 어미의 혼인생활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돈이 얼마나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살핍니다. 간단히 말해서 돈이나 지위에 기준을 두는 우리의 혼인문화가 송두리째 바뀌기 전에는 가정폭력문제는 영

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.

작은 결론을 내려봅니다. 지금 여자들은 가정 폭력을 아직도 집안문제로 축소화시키려는 경향이 확연합니다. 즉 남편의 폭력이 곧 자신의 체면과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없었던 일로 숨기거나 혹은 비밀로 부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.

또 “나 혼자만 참으면 된다”는 아주 소극적인 사고방식도 큰 장애요소입니다. 그럴 일이 아닙니다. 인간은 모름지기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폭력으로 다스려 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.

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남자만 폭력을 휘두른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남편 4명중에 한 사람이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통계수치가 있습니다. 주목하십시오. 23.8%의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얻어맞고 삽

니다.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때릴 수 있는냐고 반문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폭력을 사용합니다. 우리 시대는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. 혼돈의 시대는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. 그러나 <혼인전부터 때렸다>라는 상황만은 면해야 합니다. 비록 몸을 허락한 사이라고 해도 상대가 혼전에 폭력을 사용했을 때는 그 결혼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혼인 후에는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.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. PPFK

